

전남 농수산업 경쟁력 갈수록 떨어진다

농어업인구 10년 새 12만명 줄어
경지면적도 크게 감소
가공·수출 비중 여전히 낮아
귀농·귀어 획기적 지원책 시급

전남이 가진 경쟁력의 근원이자 식량 안보의 보루인 전남 농어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농어업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2만명이 감소하고 고령화도 급진전되고 있어 외국인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지역 농어촌 시스템이 여전히 생산에만 치우쳐 있어 부가가치가 낮고, 도시로부터의 귀농·귀어도 감소한 인구로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농업인구는 지난 2011년 37만9767명(농가 수 16만7086호)에서 지난 2020년 28만60명(13만6972호)로, 어업인구는 5만4975명(어가 수 2만1818호)에서 3만5534명(1만5635호)로 각각 9만9707명, 1만9441명 등 모두 11만9148명이 급감했다. 농어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절반을 넘어서 60%에 육박하고 있다.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1년 전남도내 농업인구와 어업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53.1%, 36.24%에 이르고 있다. 반면 30대 미만 청년 농어업 종사자는 각각 9.16%, 11.69%에 불과했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농어업 고령인구 비율은 65.9%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며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농어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높은데도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남 농어업의 낮은 부가가치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농가소득은 2011년 3043만원에서 2020년 4368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어가소득은 지난 2010년 3570만원에서 2020년 5319만원으로 비교적 상승폭이 컸지만, 어가부채 역시 세대당 3564만원에서 6390만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어가소득은 매년 편차가 심하고 양식어업 이외 어선어업, 맨손어업 등은 업종별로 격차도 컸다.



예술작품 아닙니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 녹슨 철근 5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시 남구 대촌니들목 부근 공사 현장에 철근이 녹슨채 장기간 방치돼 있어 공사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자체나 시공 상태의 철근과 관련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녹방지 커버 등을 씌워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허준이 교수 '수학계 노벨상' 필즈상 수상

한국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
조합론 여러 난제 해결 공로
한국 수학자로는 최초 영예



허준이 교수

허준이(39)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5일(현지 시간)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수학자로는 최초 수상이다. 이전까지 한국계나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적은 없었다.

허 교수는 이날 국제수학연맹(IMU)이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연 시상식에서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936년 제정된 필즈상은 4년마다 수학계에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앞으로 업적을 성취할

것으로 보이는 40세 미만 수학자에게 주어지는 수학 분야 최고의 상으로, 아벨상과 함께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허준이교수는 조합론(組合論)의 여러 난제를 대수기하학(代數幾何學)의 기법을 활용해 증명했다. 이를 통해 서로 연관성이 크지 않은 듯했던 두 분야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숨겨져 있었음을 밝혀냈다.

'수학 우주'에서 '조합론'과 '대수기하학'을 잇는 '유희' 같은 경로를 허 교수가 찾아냈다는 것이 그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던 김영훈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의 비유다. /연합뉴스

동네 재개발 권한 국토부에서 광역시로 이관 추진

민주당, 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통을 겪는 중·고소득층까지 현실화하면 매우 큰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 정부가 여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동명동 카페거리 판석형 보도블록 추진 ▶6면

손흥민 인생 최고경기는 월드컵 독일전 ▶18면



건축과 도시를 바꾸라 - 도시공원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